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무주군보건의료원 선정

### 오늘부터 시행 만 19세 이상 성인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9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8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063-320-8220, 8222)로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무주군보건의료원 황용 원장은 “군 보건의료원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자 자신의 결정이 존중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해 임종 과정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제정됐으며 연명의료결정제도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주민 김 모 씨(56)는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된다니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놓는 것도 관찮은 방법인 것 같아 상담을 한 번 받아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가야지킴이 “장수 위한 기틀 마련 다짐”

### 하반기 활동계획 수립 분과위원회 개최

장수가야지킴이들은 2018년 전반기 활동내역을 알리고 하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중간보고회 및 분과위원회를 지난 6일 장수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 앞서 샌드아트 공연, 활동동영상 시청, 장수가야 홀로 유물을 형상화한 빵·쿠키 시식회, 장수가야 홍보 사진촬영 등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한편, 장수·가야 지킴이는 지난 2016년 문화재청 주민공감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처음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전라북도와 장수군의 지원을 통해 가야문화유산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가야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답사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지킴이 활동을 통해 가야문화유산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섰으며, 영남지방의 가야문화권 현장답사를 통해 지역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성공사례를 주민 스스로가 느끼는 계기를 마련했

다. 현재 장수가야 학생지킴이 포함 약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킴이들은 이날 행사에서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장수가야문화유산의 진정한 부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힘찬 장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이날 보고회장을 찾아 격려사를 통해 자신도 장수가야의 후손으로서 가야문화유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으므로 향후 지킴이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그리고 가야문화유산의 국가사적,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앞장 설 것이며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를 지속 추진하여 선대에서 남겨준 가야문화유산을 잘 이어 받아 화려하게 꽃 피울 것을 다짐했다. 한편, 장영수 장수군수는 생동하는 장수가야 발굴 및 정비사업을 공약으로 선정하고 장수가야문화유산의 진정성 있는 부활을 표명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교육 및 발대식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7.12~16.)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7일 무주군 무풍면 일성론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최동열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기념촬영 등의 시간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여러분의 활약이 태권도의 나라, 태권도성지 무주를 알리는 척도가 된다는 생각으로 행사기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발대식 후 자원봉사자들은 분과별 직무교육을 받고 8일에는 자원봉사 실무교육과 체험사례발표, 태권도원 TI경기장 등 행사가 개최되는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또 라제동문과 구천동 등 태권도원 주변을 답사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장학숙이 지난 5일 저녁에 전문셰프가 즉석에서 요리를 선보였다.

# “공부스트레스 한방에 날려요” 진안장학숙, 전문셰프의 요리 이벤트 진행 큰 호응

진안장학숙이 입사생들의 기말고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3월에 선보였던 전문셰프의 요리 이벤트를 다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요리 이벤트는 폭립, 수제버거, 비트크림파스타 중 입사생들의 스티커 투표를 거쳐 폭립이 입사생들에게 제공될 요리로 선정

돼 지난 5일 저녁에 전문셰프가 즉석에서 요리를 선보여 입사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장학숙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셰프의 즉석요리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입사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박차

진안군은 치매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7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본격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치매진단검사는 진안군보건소와 협력이 체결된 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협력사로 위촉하여 주 1회 매주 목요일 전문적·심층적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훈련받은 치매전문 간호사가 선별검사와 치매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한 후 전문의사의 임상심리검사를 거쳐 최종 진단을 내리게 된다.

진단검사 결과 치매, 경도인지장애, 정상으로 분류하여 치매로 확진된 주

민은 진안군의료원에 정밀검진(감별검사)을 의뢰하여 더 심층적인 치매 원인규명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CT 두부) 등을 실시하게 된다.

진단검사 및 정밀검진을 통해 최종 치매환자로 확진 되면 진안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치매 치료관리지원과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번 정밀검진(감별검사)을 위해 지난달 진안군의료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원에 근무 중인 신경과 전문의의 2차 진료와 상담, 약 처방 등 치매노인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신달호 장수부군수 취임

신달호(58) 장수군 부군수가 취임했다.

신 부군수는 6일 장영수 군수로부터 임용장을 교부받은 후 군정주요현황 보고를 받고 실과소를 직접 방문해 직원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신 부군수는 “민선 7기 장영수 군수를 보좌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드는 데 역량을 발휘하겠다”



친환경유통과장을 역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드론 활용 산림사업장 지도 강화 나서

진안군은 지난 6일 진안을 가리리 일원에서 드론(무인항공기)을 활용한 조림지풀베기 사업장 현지 지도점검과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에서는 드론의 기본, 드론 결합 및 기초 비행에 관한 사항, 산림에서 드론 비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뤄졌다.

드론은 사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산림사업장 지도감독과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병해충 예찰, 산불진화 등 활용도가 많아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이에 군은 올해 조림지 1,125ha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5억원을 투입해 어린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가 되는 풀과 잡관목, 덩굴류를 제거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드론을 활용해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범죄 예방 농촌마을 방범용 CCTV 설치

장수군은 농촌지역 빈집털이와 농·축산물 도난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농촌마을 방범체제구축을 위한 CCTV를 39개 마을 40대를 설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절도 및 도난이 우려되는 농촌지역에 영상정보처리장치인 CCTV를 설치함으로써 농번기 집을 비우는 사이 발생하는 각종 농산물 등 절도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절도사건 발생시에도 증거물을 높일 수 있어 안심하고 농사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에 적극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안전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5년 135곳, 2016년 71곳, 2017년 51곳으로 206개마을에 총 257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